

## 외식에 대한 근로자 가구의 인식

김영숙\* · 모수원

성화대학 식품계열 조교수\*, 목포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2004년 10월 7일 접수)

### Salary and Wage Earners's Households' Perceptions on the Eating-out

Youngsuk Kim\* and Soowon Mo

Dept. of Food, Sunghwa Colleg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ober 7, 2004)

#### Abstract

Korean households' expenditures on foodservices are on the steady increas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foodservice expenditures of salary and wage earners's households by income decile group. This is analysed through comparing foodservice expenditures with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because households' expenditures are likely to be weighted in favor of eating-out rather than private education. We also model the consumption function in terms of income and price, examining the responsiveness of private education demand and eating-out demand to changes in income and price using econometric methods such as regression, rolling regression and impulse response. This paper show that foodservice demand increases more than the private education does in the long-run. The result indicates that households are likely to evaluate the desire for foodservice more important than private education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in the long-run.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however, suggests that households tend to increas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rather than eating-out expenditures in the short-run.

Key Words : foodservice, private education, income decile

#### I. 서론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은 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86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게임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sup>1)</sup> 90년대 중반까지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하여 외국의 프랜차이즈식당이 들어옴으로써 외식산업은 활발한 성장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의 경기침체로 외식산업

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A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1986년 4조 6천억 원에서 1991년 12조 3천억 원, 1996년 28조 2천억 원, 그리고 2002년 34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신장되었다. 1986년부터 1991년 5년간 연평균 무려 21.5%의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며, 1991년부터 1996년에는 매년 평균 18.0%의 증가를 보였다. 이후 경제적 침체의 영향을 받아 1996년부터 2002년에는 연평균 3.3%의 성장을 하는

<Table A1> Restaurants' sales

	by industry	establishment	workers	male	female	annual sales*
1986	restaurants	259,451	708,905			4,644,202
	drinking places	80,075	207,735			1,309,949
1991	restaurants	337,612	893,519			12,308,654
	drinking places	81,425	203,915			2,833,842
1996	restaurants	520,927	1,254,367	390,343	864,024	28,192,263
	drinking places	116,912	269,645	88,756	180,889	6,164,095
2002	restaurants	505,241	1,341,528	422,807	918,721	34,245,594
	drinking places	108,635	269,775	82,344	187,431	6,708,550

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외식 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2년 현재 1986년의 7.4배, 10년 전의 약 2.8배에 달하고 있다.

외식산업의 발전은 음식점업의 활동지수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Table A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03년 기간동안 음식점업 활동지수는 연평균 9.1%의 증가를 보여 우리나라 경기의 연평균 상승률 5.3%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전년대비로 2001년에는 10.8%, 2002년에는 12.3%의 신장률을 보여 동 기간 경기상승률 1.40%, 7.9%를 앞지르고 있으며, 2003년에는 극심한 내수경기침체로 경기는 1% 상승에 그쳤음에도 음식점업은 3.8%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2003년을 제외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음식점업 활동지수는 연평균 10.9%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동 기간 경기는 7.1%의 상승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기상승보다 더 크게 외식산업이 신장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도 외식산업은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식산업의 발전 추세는 핵가족화의 진전과 더불어 1세대 또는 단독 가구의 증가, 세대 구성원 수의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탈가족화 및 개인화 현상,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같이 가족 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sup>2)</sup> 이외에도 소득수준

의 향상과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가정 외식사 비중이 점차 증가한 데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sup>3)</sup> 이러한 외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서구화된 식생활이 외식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식산업 성장 그 자체도 외식문화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이 확장일로에 있는 외식산업이 국내경기과 가격의 변동에 어떠한 반응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보이는가를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식산업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자료의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외식업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외식업체의 성장 추세, 국가간 또는 세대별 외식성향의 차이 등을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다.<sup>4)~8)</sup> 이에 비해 거시경제년수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을 분석한 논문으로 최근 우문호·이정형·정익준<sup>9)</sup>이 유일할 정도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도시가계의 분기별 외식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가계가 외식을 어느 정도 크게 인식하는가를 보인다. 여기에는 외식비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지출도 도입된다. 그것은 사교육비와 비교를 통해서 가계의 외식에 대한 평가를 보다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가 매년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것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는 거의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명문학교 입학에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교육적 에너지를 사교육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교육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다니는 것은 졸업장과 학

<Table A2> Restaurants' sales indexes and business indicators

	1999	2000	2001	2002	2003
restaurants' sales index	91.2	100	110.8	124.4	129.1
business indicators*	88.9	100	101.4	109.5	109.1

주: \*: million won

source : <http://www.nso.go.kr>

위를 취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조기유학과 교육 이민을 유행처럼 번성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도시가계들이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사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외식은 자신과 가족의 후생증진과 욕구충족이라는 특징을 갖는 데 비해, 사교육은 자신, 가족 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현재의 희생 내지는 기본적 욕구의 억제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사교육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나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고는 외식비와 사교육비의 비교를 통해 소득수준과 가격의 변동에 따른 두 품목의 반응과 장기와 단기에서 도시가계의 행동패턴 차이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제2장에서 연별 자료를 제시하여 외식비와 사교육비의 특성과 패턴을 개관한 후, 제3장에서 모형을 구성하여 전형적 이동회귀와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 II. 가계소비패턴의 개관

<Table 1>은 도시가계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소득계층별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상승하여 최하위 소득층인 1분위층의 8.61%로부터 시작하여 소득 4분위에서 9.61%로 정점을 이룬 후 다시 하락하여 최상위 소득층인 10분위층에서 7.5%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정 단계의 소득층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증가한 소득은 미래를 위한 저축을 증가하기보다는 억제되어왔던 소비욕구를 충족하는데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달성되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저축에 보다 더 치중한다. <Table 1>은 중하위 소득층이 중상위 소득층에 비해 소득증가를 소비욕구 충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식료품에 대한 지출증가율이 소득 10분위층

<Table 1> annual increase rate by income decile group

income decile	consumption	food	net food	foodservice	private education
1st	8.61	6.90	4.34	15.3	14.6
2nd	9.38	7.40	4.22	15.8	16.1
3rd	9.50	7.70	4.33	15.9	16.2
4th	9.61	7.54	4.12	15.3	17.8
5th	9.15	7.25	3.77	14.5	16.1
6th	9.25	7.49	3.89	14.9	16.6
7th	9.13	7.45	3.80	14.8	15.8
8th	8.72	7.11	3.58	13.9	15.2
9th	8.56	6.89	3.59	12.9	14.5
10th	7.50	5.82	3.12	10.3	14.3

의 5.82%에서 3분위층의 7.70%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가계의 소비지출증가율 7.50-9.61%와 비교할 때 예상과 달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식료품비에 외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식료품비에서 외식비를 뺀 순식료품비의 증가율은 3.12-4.3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외식과 사교육의 지출증가율은 대단히 높다. 외식에 대한 지출은 10.3-15.9%,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14.3-17.8%로 순식료품비 증가율 3.1-4.3%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 지출증가율 7.5-9.6%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소득 1분위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층에서 사교육비 증가율이 외식비 증가율 보다 크게 나타나 도시가계가 외식보다는 사교육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와 외식비에는 사교육 가격과 외식 가격의 변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을 제거한 실질변수를 이용하여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Table 2>는 외식비와 사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계층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외식비가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3.9-28.3%에서 2003년 37.1-49.8%로 크게 상승하여, 2003년 현재 중상위 소득층의 경우 거의 50%에 도달하고 있다. 외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외식비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2003년 현재 11-14%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990년 1.8-3.6%에서 2003년 4.0-7.4%로 크게 상승하였다.

<Table 2> ratio of foodservice and private education

(%)

income decile	foodservice/food		foodservice/consumption		private education/consumption	
	1990	2003	1990	2003	1990	2003
1st	13.90	37.11	5.23	11.36	1.97	3.98
2nd	16.20	43.29	6.14	12.94	1.84	3.98
3rd	17.59	45.50	6.39	13.32	2.28	4.94
4th	18.76	46.62	6.70	13.00	2.40	6.15
5th	20.79	48.42	7.27	13.48	2.76	6.15
6th	20.66	49.00	7.17	13.77	3.03	7.05
7th	20.82	49.45	6.92	13.43	3.16	6.84
8th	22.40	49.79	7.13	13.05	3.48	7.40
9th	24.20	49.51	7.44	12.43	3.65	7.30
10th	28.27	48.73	7.66	10.75	3.35	7.42

이러한 수치를 통해 가계소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교육비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2003년 소득 1분위층의 경우 월평균 외식비는 사교육비의 2.7 배이며, 소득 10분위층에서는 외식비가 사교육비의 2.3 배에 달하고 있다.

표준편차/평균×100 으로 정의되는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에 있어서 외식비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0.6에서 2003년 7.7로 하락한 반면,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3.0에서 2003년 22.2로 거의 변화가 없다. 사교육비의 변이계수가 외식비의 변이계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소득계층에 따른 지출의 차이가 외식비보다 사교육비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식비는 소득수준이 낮고 높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소득층에서 비슷한 비율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교육비는 소득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비의 변이계수는 1990년과 2003년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해 외식비의 변이계수는 1990년에 비해 2003년에 비교적 크게 하락하였다. 이것은 고소득층일수록 소비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이러한 패턴은 1990년이나 2003년이나 변화가 없다는 없어 사교육의 부유층 편중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외식은 고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2003년에 크게 줄어들어 소득계층간 외식의 평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의 변동에도

외식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기할 수 있으나 사교육시장은 경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한다.

### III. 모형도입과 실증분석

본고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외식과 사교육에 대한 구조를 비교분석한다.

$$expend_i^t = a_0 + a_1 income_t + a_2 price_t^i + a_3 inf_t \quad (1)$$

여기서  $i$ 는 식료품, 순식료품, 외식, 사교육이며,  $expend$ 는 해당 품목의 실질 지출,  $price$ 는 해당 품목의 가격,  $income$ 은 가계의 소득이다. 순식료품비는 식료품에 대한 지출에서 외식에 대한 지출을 뺀 비용이며, 모든 지출은 해당 품목의 지출에서 가격변동요인을 제거한 실질지출이다. 따라서 식 (1)은 외식과 사교육에 대한 수요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inf$ 는 외환위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해당품목의 수요가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도입한다. 모든 자료는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구하며 분석은 1990년 1분기부터 2004년 1분기까지이다. 식 (1)을 추정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식료품비에서 외식비를 뺀 순식료품비의 경우 소득 6분위층과 8분위층에서 소득계수가 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추정계수가 0.1과 0.3 사이로 대단히 낮아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소득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예상한 바와 같이 소득증가에도 쌀과 같은 식료품에 대한 수

&lt;Table 3&gt; Estimation of expenditure function

	coeff	net food	foodservice	private education
1st	income	0.173***	0.936***	1.229***
	price	-0.402***	0.511 <sup>NS</sup>	-0.486***
	imf	-0.056***	-0.264***	0.087 <sup>NS</sup>
	R <sup>2</sup>	0.867	0.900	0.772
2nd	income	0.292***	1.541***	1.958***
	price	-0.611***	-0.444 <sup>NS</sup>	-1.255***
	imf	-0.096***	-0.270***	-0.136**
	R <sup>2</sup>	0.792	0.940	0.897
3rd	income	0.102**	1.768***	1.693***
	price	-0.317***	-0.968**	-1.079***
	imf	-0.076***	-0.202***	-0.187***
	R <sup>2</sup>	0.866	0.937	0.845
4th	income	0.170***	1.680***	1.570***
	price	-0.439***	-0.965***	-0.924***
	imf	-0.079***	-0.205***	-0.175***
	R <sup>2</sup>	0.822	0.949	0.887
5th	income	0.114**	1.863***	1.552***
	price	-0.363***	-1.423***	-0.942***
	imf	-0.099***	-0.162***	-0.239***
	R <sup>2</sup>	0.828	0.934	0.860
6th	income	0.081 <sup>NS</sup>	1.872***	1.483***
	price	-0.336***	-1.503***	-0.869***
	imf	-0.105***	-0.143***	0.011 <sup>NS</sup>
	R <sup>2</sup>	0.865	0.955	0.829
7th	income	0.113**	1.714***	1.682***
	price	-0.467***	-1.265***	-1.209***
	imf	-0.099***	-0.176***	-0.127**
	R <sup>2</sup>	0.902	0.948	0.867
8th	income	0.077 <sup>NS</sup>	1.814***	1.035***
	price	-0.433***	-1.627***	-0.322 <sup>NS</sup>
	imf	-0.102***	-0.114***	-0.156***
	R <sup>2</sup>	0.907	0.955	0.878
9th	income	0.108 <sup>NS</sup>	1.699***	0.615***
	price	-0.485***	-1.528***	0.158 <sup>NS</sup>
	imf	-0.125***	-0.076*	-0.155***
	R <sup>2</sup>	0.870	0.945	0.851
10th	income	0.282**	0.688***	0.649**
	price	-0.921***	-0.171 <sup>NS</sup>	-0.242 <sup>NS</sup>
	imf	-0.130***	-0.087*	-0.048 <sup>NS</sup>
	R <sup>2</sup>	0.852	0.851	0.821

1) \*\*\*: p&lt;0.01, \*\*: p&lt;0.05, \*: p&lt;0.1.

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외환 위기의 영향을 받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

료품 가격상승에 대해서도 모든 소득계층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외식과 사교육의 소득탄력성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양(+ )의 부호를, 가격탄력성은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음(-)의 부호를 가져, 소득수준의 향상이 외식과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가격의 상승은 외식과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계층 8분위, 9분위, 10분위에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사교육 가격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계층 1분위, 2분위, 10분위에서는 외식에 대한 수요와 외식가격간에 유의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위소득계층인 8분위, 9분위, 10분위에서는 외식가격의 상승에 외식을 줄이나 사교육가격의 상승에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지 않는데 비해, 소득 1분위층과 2분위층 같은 하위 소득계층에서는 사교육 가격의 상승에 대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나 외식가격이 상승하여도 외식수요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 상위층에서는 가격인상에 따른 구매력 부족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않는 대신 외식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외식을 줄이는 것보다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배고픈 소득계층에서 사교육은 필수재가 아니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이 필수재화 되고 있다. 그리고 최상위 소득층인 10분위에서는 사교육 가격과 외식가격의 인상에 수요가 영향을 받지 않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Table 3>에서 소득 1분위층과 2분위층의 외식의 소득탄력성이 사교육의 소득탄력성보다 더 낮으나 나머지 소득층에서는 외식의 소득탄력성이 사교육의 소득탄력성 보다 더 커서, 소득하위층에서는 소득증가에 대해 외식증가보다 사교육의 증가가 더 크게 이루어지나, 나머지 모든 소득층에서는 외식에 대한 수요가 사교육에 대한 수요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교육열을 고려할 때 소득증가시 외식보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것은 소득과 상관관계에 있어서 소득 1분위층과 2분위층에서는 사교육의 상관계수가 더 크나 나머지 소득층에서는 외식의 상관계수가 더 크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Table A3> 참조).

<Table A3> Correlation Coefficients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f.service	0.934	0.961	0.967	0.974	0.972	0.975	0.973	0.978	0.983	0.976
p.edu	0.945	0.968	0.950	0.946	0.948	0.943	0.956	0.960	0.955	0.901

주: \*: index of shipment for domestic market  
 source : <http://www.nso.go.kr>

그리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 더 커서 가격상승에 의한 외식과 사교육에 대한 수요감소보다 소득증가에 의한 수요증가가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외환위기는 소득 1분위, 6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층의 사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2분위, 3분위, 4분위, 7분위층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외식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외환위기는 사교육보다 더 많은 계층에서 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외환위기로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 때 가계들은 외식을 더 많이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계층 9분위와 10분위에서 외식의 외환위기 계수는 10%에서 겨우 유의하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소득 9분위와 10분위의 외식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환위기는 소득 9분위층과 10분위층 같은 소득 상위층의 사교육과 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를

실시한다. <Table 4-5>, <Fig. 1-10>은 사교육과 외식의 소득탄력성을 전향적 이동회귀를 이용하여 추정 한 결과이다. <Fig. 1-10>에서 <Fig. 2>의 소득 2분위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외식의 소득계수를 나타내는 오른쪽 축의 크기가 사교육의 소득계수를 나타내는 왼쪽 축의 크기보다 커서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실질 외식비의 증가가 실질 사교육비의 증가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 1분위층에 있어서 외식의 소득탄력성은 국내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2003년 2분기부터 하락하고 있으며, 사교육은 2003년 2분기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악화가 소득 1분위층의 외식보다 사교육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하위 소득층의 경우 경기침체에 의한 구매력감소를 외식육구 억제보다는 사교육의 감소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2분위층, 3분위층, 4분위층에서는 외식과 사교육의 소득탄력성이 거의 유사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외식의 경우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Table 4> Income elasticity of private education: rolling regression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2001:1	1.223	2.073	1.728	1.700	1.687	1.404	1.739	1.119	0.787	0.798
2001:2	1.223	2.066	1.727	1.699	1.685	1.405	1.746	1.120	0.787	0.809
2001:3	1.222	2.063	1.727	1.700	1.687	1.405	1.746	1.126	0.795	0.808
2001:4	1.222	2.063	1.727	1.701	1.688	1.405	1.752	1.131	0.796	0.781
2002:1	1.208	2.061	1.732	1.710	1.689	1.396	1.760	1.155	0.793	0.773
2002:2	1.229	2.058	1.728	1.710	1.690	1.401	1.773	1.158	0.806	0.752
2002:3	1.230	2.058	1.729	1.710	1.691	1.398	1.777	1.162	0.799	0.747
2002:4	1.231	2.056	1.727	1.700	1.684	1.397	1.774	1.160	0.796	0.748
2003:1	1.227	2.069	1.757	1.738	1.703	1.406	1.778	1.170	0.809	0.747
2003:2	1.199	2.070	1.782	1.771	1.725	1.429	1.793	1.177	0.814	0.637
2003:3	1.187	2.072	1.804	1.789	1.734	1.438	1.800	1.186	0.818	0.545
2003:4	1.163	2.072	1.813	1.795	1.741	1.437	1.805	1.191	0.812	0.468
2004:1	1.163	2.080	1.849	1.817	1.771	1.471	1.822	1.214	0.820	0.480

<Table 5> Income elasticity of foodservice: rolling regression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2001:1	1.142	1.702	1.881	1.879	1.918	1.945	1.889	1.903	1.734	0.930
2001:2	1.191	1.741	1.913	1.919	1.972	1.986	1.936	1.927	1.756	0.888
2001:3	1.218	1.768	1.973	1.971	2.036	2.026	1.968	1.959	1.800	0.843
2001:4	1.255	1.821	2.035	2.006	2.058	2.048	1.981	1.945	1.805	0.855
2002:1	1.283	1.884	2.036	2.031	2.109	2.078	1.997	1.926	1.810	0.807
2002:2	1.326	1.929	2.062	2.020	2.112	2.074	2.010	1.932	1.802	0.795
2002:3	1.337	1.935	2.065	2.012	2.117	2.076	1.995	1.955	1.808	0.801
2002:4	1.333	1.932	2.068	2.004	2.097	2.076	1.989	1.963	1.811	0.783
2003:1	1.338	1.946	2.062	2.005	2.103	2.086	1.985	1.983	1.813	0.781
2003:2	1.324	1.952	2.088	2.011	2.127	2.119	2.015	2.010	1.838	0.784
2003:3	1.312	1.968	2.105	2.022	2.143	2.132	2.046	2.032	1.850	0.790
2003:4	1.299	1.992	2.140	2.035	2.160	2.152	2.076	2.034	1.855	0.790
2004:1	1.293	2.014	2.145	2.065	2.176	2.166	2.076	2.042	1.842	0.791

로 소득계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은 소득 2분위층에서 소득계수가 2002년 4분기에 2.056 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의 경우 사교육은 2002년 4분기까지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3년 1분기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소득 7분위, 8분위, 9분위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외식과 사교육의 탄력성이 크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최상위계층인 10분위에서는 사교육의 탄력성과 외식의 탄력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정 기간 침체 또는 하강국면을 겪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외식과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외식보다는 사교육의 정체와 감소가 크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의 소득계수는 0.80에서 0.48로, 외식의 소득계수는 0.93에서 0.79로 감소하여 사교육보다 외식이 훨씬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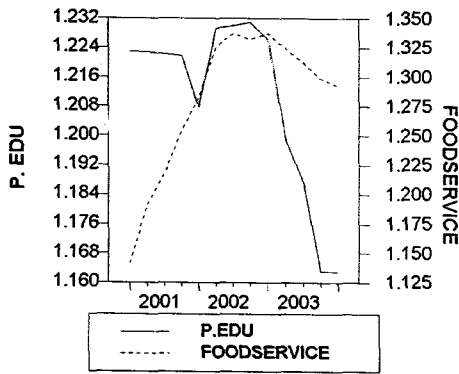
이제 앞에서 살펴본 사교육과 외식의 장기적 특성과는 별도로 단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격반응함수를 도입한다. 충격반응함수는 모형 내의 어느 특정 변수에 대하여 1단위 표준편차(one standard deviation)의 충격을 가한 다음 모형 내의 모든 변수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 반응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간의 상호 연관관계 또는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충격반응분석은 균

형으로부터 괴리의 지속정도, 규모, 그리고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괴리의 규모는 각 변수의 반응경로의 최대 폭으로 측정하며, 괴리의 지속정도는 정책변수에 1단위 표준편차만큼의 외생적 충격을 가했을 때, 충격을 받는 변수가 추세로 회귀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측정한다. 충격반응함수는 다음과 같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correction model)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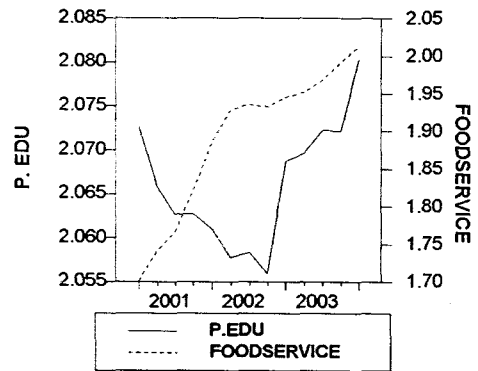
$$\Delta X_t = \sum_{i=1}^n A_i \Delta X_{t-i} + \sum_{i=1}^r \xi_i \Theta_{t-i} + v_t \quad (2)$$

여기서  $X_t$ 는 외식(사교육)의 실질지출, 도시가계의 소득, 외식(사교육) 가격의 벡터이다.  $\Theta$ 에는 오차수정항이 포함되며,  $v_t$ 는  $X_t$ 의 예상하지 못한 변동을 보여주는 충격(impulse) 벡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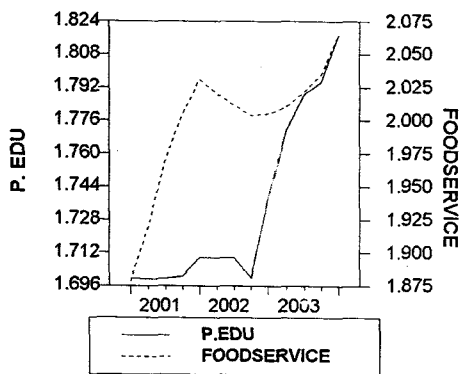
<Table 6>은 소득충격에 대한 외식과 사교육의 단기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과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충격에 대해 사교육의 반응이 외식의 반응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 1분위층의 경우 외식의 최대 반응은 0.0102인데 비해 사교육의 반응은 0.0241이고, 소득 5분위층의 경우 외식의 최대반응은 0.0155인데 비해 사교육의 반응은 0.0281이다. 또한 대개의 경우 소득증가충격의 효과는 충격 1분기 이내에 양(+)의 효과가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외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증가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효과는 1분기 이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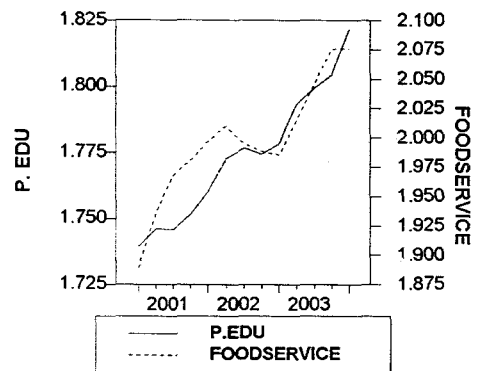
<Fig. 1> rolling regression: 1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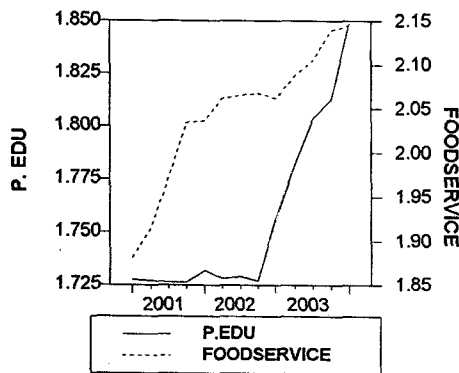
<Fig. 2> rolling regression: 2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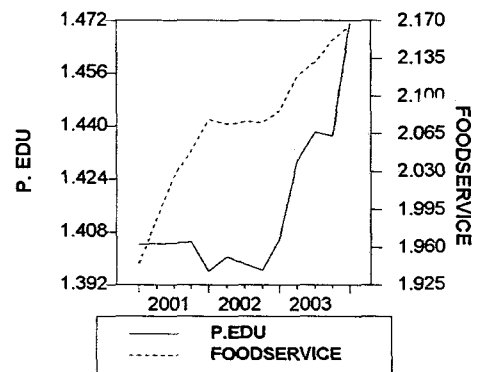
<Fig. 3> rolling regression: 3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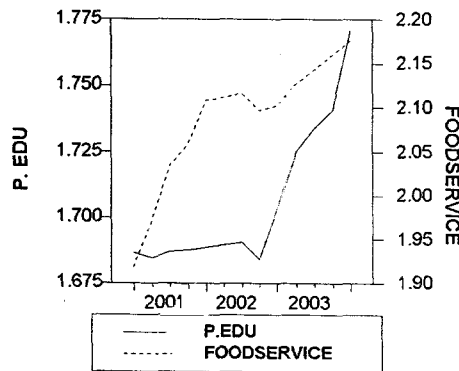
<Fig. 4> rolling regression: 4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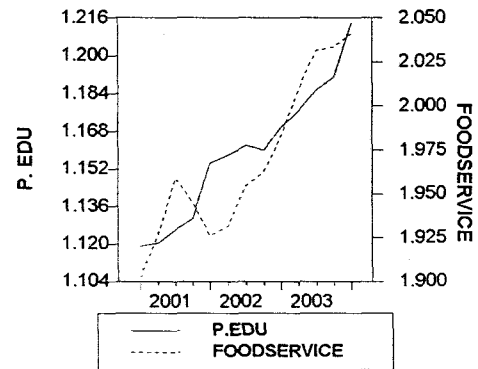
<Fig. 5> rolling regression: 5th



<Fig. 6> rolling regression: 6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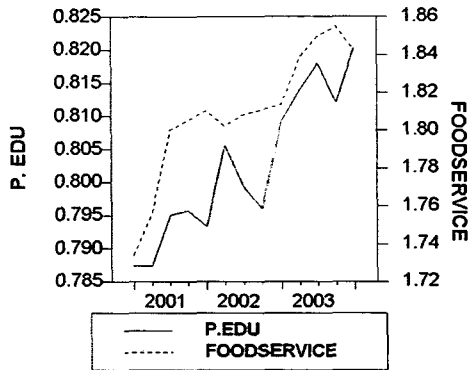


<Fig. 7> rolling regression: 7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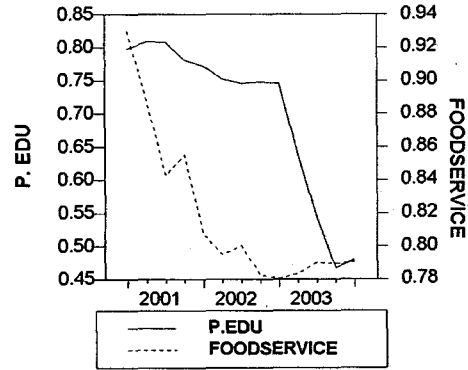


<Fig. 8> rolling regression: 8th





<Fig. 9> rolling regression: 9th



<Fig. 10> rolling regression: 10th

<Table 6> Responses of foodservice and private education to income shock

income	step	foodservice	private education	income	step	foodservice	private education
1st	1	0.0000	0.0000	2nd	1	0.0000	0.0000
	2	0.0102	0.0241		2	0.0344	0.0500
	3	-0.0011	-0.0083		3	-0.0016	-0.0138
	4	0.0001	0.0023		4	0.0006	0.0015
3rd	1	0.0000	0.0000	4th	1	0.0000	0.0000
	2	0.0170	0.0413		2	0.0181	0.0289
	3	0.0023	-0.0113		3	-0.0022	-0.0107
	4	0.0007	0.0013		4	0.0007	0.0043
5th	1	0.0000	0.0000	6th	1	0.0000	0.0000
	2	0.0155	0.0281		2	0.0098	0.0150
	3	-0.0035	-0.0080		3	-0.0010	-0.0048
	4	0.0007	0.0012		4	0.0004	0.0018
7th	1	0.0000	0.0000	8th	1	0.0000	0.0000
	2	0.0106	0.0392		2	0.0163	0.0204
	3	0.0009	-0.0204		3	0.0034	-0.0089
	4	0.0001	0.0112		4	0.0008	0.0026
9th	1	0.0000	0.0000	10th	1	0.0000	0.0000
	2	0.0099	0.0160		2	0.0085	0.0122
	3	-0.0020	-0.0045		3	-0.0019	-0.0108
	4	0.0002	0.0016		4	0.0035	0.0062

사라지고 있다.

#### IV. 결론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가족 구조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외식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외식

비, 소득, 가격, 사교육비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간계의 외식과 사교육에 대한 특성을 밝힌다.

먼저 연별 자료를 통해 일정 단계의 소득층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증가한 소득은 미래를 위한 저축을 증가하기보다는 억제되어왔던 소비욕구를 충족하는데 더 많이 쓰인다는 것과 일정 수준의 소득이 달성되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저축에 보다 더 치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이계수를 통해 사교육의 부유층 편중화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과 소득계층간 외식의 평

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을 추정한 결과 소득의 증가는 외식욕구와 사교육에 대한 기회를 증가시키며, 가격의 상승은 외식과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층의 경우 사교육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외식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였다. 최하위 소득계층에서는 가격인상에 대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이나 외식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위계층에서는 가격인상에 대해 외식에 대한 수요는 줄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하위계층에서는 소득증가에 대해 사교육보다 외식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나, 나머지 계층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증가가 더 크게 이루어졌다. 외환위기는 상위소득계층의 사교육과 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외식이 사교육보다 더 많은 계층에서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기적인 지출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충격반응함수를 도입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외식을 늘이는 것보다 사교육을 더 크게 늘이나 이러한 충격은 1분기 이내에 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 참고문헌

- 1) Han KS, Seo KM, Park HN, and Hong SY. Issues of Korean restaurant industry by content analysis of food yearly statistics. *Korean J. Dietary Culture*, 19(3): 313-325, 2004.
- 2) Jo HY and Kim SA.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patterns of youth: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different regions. *Korean J. Dietary Culture*, 19(3): 336-347, 2004.
- 3) Kim YG. The differences of atmosphere in eating out selection. *J.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2(2): 57-73, 2000.
- 4) Kim CS. The effect of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of food-service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4(1): 96-112, 2002.
- 5) Lee JS. Difference of the guest's selection for the restaurant in task situation. *J.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4(1): 51-67, 2002.
- 6) Lee JS and Choi SH. Relation between negative word-of-mouth communication on choice of restaurant and purchasing behavior in the customer of food service. *J.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3(2): 9-24, 2001.
- 7) Jeong KH. Differences in selection attributes for customers' motives and choice behavior between family and business level dining-out: A cross-national study for Korea and Japan. *J. Tourism of Tourism Sciences*, 26(4): 259-274, 2003.
- 8) Hahm SP and Jun JK. Co-branding as an alternative franchising strategy in the restaurant industry. *J.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4(3): 39-53, 2003.
- 9) Woo MH, Lee JH, and Chung IJ. The influence of macro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 on the food service industries. *J.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5(2): 79-98, 2003.